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사 41:10

세상은 모두 둘로 나누어 싸우고 있는데,

그 둘은 어느 누구 하나 옳은 것 없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갈라진 것일 뿐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 한반도의 남북 대치, 정치권의 여야, 한국의 노사 갈등 등.....

저들은 서로의 이익만을 위해 옳고 그름을 떠나 자신이 옳다고 서로에게 손가락을 가리키며 약속에 약속을 깨트리며 온 세상을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는 세상의 제왕들 사이에서 한 순간도 평강의 시간을 누리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의 왕이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며 강한 신뢰를 통한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매순간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으면 세상의 제왕들이 주는 두려움을 모두 다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2019년도 벌써 중반으로 들어가는 6월이 시작될 정도로 빠른 세월을 실감합니다.

한국에도 더위가 가득하고 가끔 비가 내린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 것처럼, 까보베르데 역시 절대 오지 않을 것 같은 더위가 찾아오고 ‘흑시나’ 이번 6월에는 비가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며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고 다가오지 않은 날에도 함께하신다는 확실한 약속을 붙잡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이 땅에 흘러넘치기를 기도하며 부족한 자에게 맡겨 놓으신 땅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 기도제목

- *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삶의 일상이 되도록
- * 현지인 동역자들과 교제와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의만 드러낼 수 있도록
- * 리보네구아 교회를 통해 배움의 터전이 되고 영혼을 적시는 생명수 강이 되도록
- * 도심에 있는 학교부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건축이 시작 되고 기독교 학교 설립 허가 문제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 * ‘예지’자매와 이 광재 목사님부부의 까보베르데 방문을 통해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작은 섬나라 곳곳에 드러날 수 있기를

서부 아프리카 대서양의 작은 섬나라 까보베르데 조 남홍, 연섭 선교사 드립니다.

소속 : 한국 불어권 선교회, GMP America

전화 : 한국 070-8724-4456, 까보베르데 238) 959-3512, 3513

주소 : CP 1007, Praia, Cape Verde

E-Mail : nhongcho@hanmail.net, ycho56213@daum.net

카톡 ID : cavoverdecho, Aroma56